

물길은 새마을 따라

지도교수 : 정희돈 <경북새마을기술봉사단, 영남대학교 농축대학>

발 표 자 : 정기인 <경북 영천군 임고면 선원 1 등 새마을 지도자>

1. 마을개황

선원마을은 대구에서 44k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4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락의 길이가 4km정도 되며 부락간

의 거리도 300m에서 60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 1동과 2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을은 선원 1동입니다.

선원마을이 생긴 것은 약 450여년 전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거의 영일 정씨 문중이 살고 있습니다.

표 1 연구호수경지면적

호 수			인 구			경 지 면 적				
농가	벼농사	계	남	여	계	호당평균	논	밭	사과밭	계
65호	18호	83호	250명	258명	508명	6명	9.5ha	31ha	15ha	55.5ha

표 2. 문화시설

T V	라디오	냉장고	전축	오토바이	자전거
23대	72대	11대	4대	4대	27대

표 3. 농기구 소유현황

경운기	분무기	탈곡기	양수기
15대	32대	12대	32대

2. 새마을 기초사업의 성과

마을의 형성이 골짜기를 중심으로 하여 양쪽 언덕에 위치하고 그 경사도가 15도에서 45도 이상의 가파른 언덕에 길과 집들이 있어서 우선 마을 진입로와 농로를 확장하려면 개인 소유땅의 할애와 평균 2m이상의 축대를 쌓아야 하는 난공사를 하여야만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입구에 진입로를 확장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330m²(100평)정도의 땅이 소요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구입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장사업은 포기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그땅의 주인이 저의 마을과 기술 결연을 맺으신 정희돈 교수라서 저와 이장이 두번에 걸쳐 사정을 설명하였더니 선뜻 그땅을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새마을 사업자금으로 2만원까지 내어놓으며 잘해보자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다시 활기를 찾아 새마을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길이 25m에서 4m넓이의 마을 안길 넓히기와 농로 확장공사의 총길이가 2.5km이상이 되었고 평균 1.5m이상의 폭을 쌓은 길이가 500m이상

물길은 새마을 따라

이며 교량 3개에 총연장 20m를 설치하였고 지붕개량, 담장개수, 공동우물 2개소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일단계 마무리되었습니다.

경북새마을 기술봉사단 정희돈(영남대) 교수와 기술지도를 위한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74년 여름이었습니다. 정희돈교수는 본래 우리 마을 출신이고 대학 재학시부터 4-H회를 조직, 야간학교를 개설하여 한문·영어·역사를 가르치어 크게 존경을 받은 분으로 매우 반갑게 생각되었으나 별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교수는 기술지도 책자를 보내주고 보리밭의 산성 피해에 대한 석회 사용지도, 연초 건조시 연탄가스의 피해, 사과밭의 약제 살포등에 대하여 이따끔 내왕하며 지도하여 마을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많이 수고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마을 주민의 관심을 집중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3. 기술지도 방법 및 사례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새마을 사업도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기간은 얼마되지 않았지만 기술결연교수의 노력에 비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서 이장 새마을 지도자 및 마을의 유지들은 이에 매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1976년 4월 4일 정희돈 교수가 주민대표 몇 사람을 모아놓고 선월마을에서 가장 긴급한 숙원 사업이 무엇인가를 묻고 타결점을 의논하였습니다.

첫째, 마을 양쪽언덕에 위치하고 있는 33ha (10여만평)의 밭을 논으로 전환시키는 것과, 둘째, 마을앞 자호천에 잠수교를 설치하여 1km이상 우회하는 길을 단축시키는 것, 셋째, 새마을 전화 가설, 넷째, 상수도 시설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1차 사업으로 가장 소득 증대와 직결되고 또한 여러가지 기술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밭을 논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을 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후 76년 4월 14일 정교수와 다른 두분의 경북 새마을 기술봉사단 전문 기술지도교수가 현지를 답사하고 양수시설을 설치하면 밭을 논으로 만들 수 있다는

아주 낙관적인 결론을 내려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업에 해당되는 언덕의 밭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면 30여ha에 달하는 밭은 경사가 거의 없고 최하 수백평에서 최고 수천평이 한 필지로 평평하게 되어 있으며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이 밭에는 보리와 콩을 윤작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부는 담배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밭을 논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나 너무 거창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후 경북 새마을 기술 봉사단에서는 수차례의 현지조사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 사업은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훌륭한 사업이므로 적극 협조를 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우선 주민들이 일정액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기타 사업에 필요한 노동력 등을 제공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양수시설을 하려면 최소한으로 2천 5백만원이 소요되므로 그 반이라도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주민부담금은 3.3m²(평)당 200원 미만이었으나 일시금으로는 벅찬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주민들이 거의 실망을 하게 되어 포기하자는 여론도 대단하였습니다. 그런데 76년 6월 6일 정교수가 와서 우선 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나씩 해결해가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마을의 유지 몇분과 젊은 사람을 합해서 7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매우 바쁘고 서로의 이해관계 및 의견의 불일치로 인하여 추진이 아주 부진하였습니다. 정교수는 올때마다 사업추진의 진도를 묻기 때문에 정말 정교수를 만나기조차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경북 새마을 기술봉사단에서는 추곡 및 하곡 매상배 일부금을 저축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라고 지도를 하여 10월 추수가 끝나고 좀 여유가 있을때 위원들이 지도교수인 정교수를 믿고 한번 돈을 거두워 보자고 결의하고 밭주인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설명하고 추진위원을 믿지말고 정교수를 믿고 자금을 조성하자고 설득한 결과 1천만원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4. 효과 및 실적

77년 1월 5일 추진위원들은 1천만원이 예금되어 있는 농협예금 통장을 맡기면서 모든 것을 부탁한다고 하였더니 경교수는 즉시 경북 새마을 기술봉사단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단장, 총무, 전문위원등이 모여 협의한 결과 경북도와 절충하자는 의견이 있어 경북도 지사를 예방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에서도 당연히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1월 10일, 도 용수계장과 기술직원을 현지에서 파견하여 가능성 여부를 조사케 하였습니다. 이때 경북 새마을 기술봉사단 단장님과 전문지도교수 4명, 영천군의 부군수, 건설 농지과장, 면장의 5명, 농협조합장, 임고 국민학교장 및 주민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면밀한 검토를 하고 수량등을 계산한 결과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을은 활기를 띄게 되었으나 경지정리를 하지 않고 양수시설만 해도 2천여만원이 소요하므로 나머지 돈의 염증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800만원을 지원하고 군에서 300만원을 지원하여 이 돈 2천 1백만원으로 일차적으로 양수시설을 하여 월당 개답하기로 결정하고 수차에 걸친 현장답사를 경북 새마을 기술봉사단과 영천군에서 조사하였고 주민들과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77년 3월 11일 경북 새마을 기술봉사단 정희돈 지도교수, 최정교수, 영천군 건설계장, 주민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시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수정 설치와 집수로의 매몰에는 상당한 단적이 요구되는데 집수정과 기계실은 정희돈 교수의 개인 소유지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해결되고 난뒤에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동리자들도 적극 협조하여 3개월여에 걸친 공사끝에 6월 28일 드디어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관수 파이프 길이가 1200m에 100마력의 양수모터를 설치하여 퍼 올린 물은 관수파이프를 통하여 두곳의 집수 소류에 모이게 하고 여기에

다시 각 밭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개의 개울을 건너서 약 1.5km 이상 가야만 논을 얻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바로 문앞에 이렇게 기름진 논을 갖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3.3m²(1경)당 1000원도하는 밭이 3000원이상 호가하는 논으로 전환되었으니 주민에게 일석이조의 효과라 아니할 수 없으며 경북 새마을 기술봉사단의 미래안에 한번 더 감복하게 되었습니다.

5. 전 망

이번 수리사업에 해당하는 총 면적은 개간지를 제외한 약 32ha 이상이나, 현재 29ha가 가입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30ha를 계산하더라도 30ha(9,000경)에서 쌀이 126%이 생산되고 보리도 24%이 증산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동안 농가호당 평균소득이 1백만원을 조금 상회하였으나 이제 벼만 심는다 하더라도 평균 농가소득을 2배이상 증대시킬 수 있고 그동안 가뭄때문에 재배하지 못하던 특용작물등을 재배하면 더욱 그 효과가 크리라 믿습니다.

이와같은 사업은 우선 경북 새마을 기술봉사단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 또 지도교수인 정희돈 교수의 물심양면에 걸친 협조 및 행정당국인 경상북도와 영천군의 각별한 배려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희 주민들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민 그리고 교수가 혼연일체가 되어 새마을 소득증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놓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큰 소리로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의 결과로 동민이 일차 단결하여 새마을 사업의 참뜻을 충분히 인식하여 스스로 잘사는 마을을 만들려고 노력하리라고 믿어집니다.

남은 사업인 새마을 전화가설, 상수도시설 및 교량 축조 등도 이제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여기며 이자리를 빌려 경북 새마을 기술 봉사단의 여러 교수님께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